

# 앱 하나면 OK... 초보개미도 춤추게 하는 '투자 길잡이'

(하나원큐주식)

## 증권가의 디지털혁신

### ⑥ 하나금융투자

앱, 쉽고 편한 주식투자에 초점 화면구성 단순화해 한 눈에 확인 공인인증서 없이 주식주문·이체 일반 투자자도 시분할매매 가능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고, 하나금투 계좌가 있는 고객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숫자로 된 6자리 비밀번호 또는 패턴을 통한 간편인증만으로 주식 주문과 이체를 할 수 있다.

하나원큐주식 앱은 편의성을 극대화한 화면 구성이 장점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하나원큐주식 앱의 평점은 5점 만점이다. 고객들은 "화면 구성이 깔끔하고 편리하다"며 호평을 남겼다.

실제 앱은 투자가 처음인 투자자에게도 어렵지 않도록 구성돼 있다. 매뉴얼은 리서치추천, 관심종목, 보유종목, 펀드, 해외주식 등 5개뿐이다. 개인정보 탭으로 넘어가면 나의 모든 투자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주식 주문과 이체가 가능하다.

리서치추천	관심종목	보유종목	펀드
하나금융투자 BEST 리서치 3년 연속 1위!			
<b>카카오</b> 목표가 184,500 수익률 15.58% 현재가 152,000 펀딩일 19.07.01 편입가 131,500	<b>POSCO</b> 목표가 258,000 현재가 224,000 수익률 0.00%	<b>롯데케미칼</b> 목표가 272,500 현재가 227,000 수익률 0.00%	<b>한국전력</b> 목표가 32,900
<b>LG유플러스</b> 목표가 18,350			

하나원큐주식앱 메인화면. /하나원큐주식 캡처

유진곤 하나금융투자 디지털사업본부장은 "하나원큐주식"은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손님에게 보다 쉽고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도 단계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보다 고도화된 손님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나금투는 국내 투자앱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거래에서도 디지털 혁신을 만들었다. 이른바 '미국 논스톱 트레이딩 서비스'다.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했고, 업계 최초로 시분할 매매를 도입했다.

투자자들은 시분할 주식매매 시스템을 통해 미국 주식시장을 시차없이 대응할 수 있게됐다. 시간대 별로 매수 혹은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어 주가 급변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 글로벌주식영업부는 "나스닥 등 현지거래소와 협업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전용물이던 시분할매매를 일반 투자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서 "시간 대 별로 주문 수량을 정할 수 있어서 고객들의 투자 편의와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하나머니에 심은 투자 DNA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부터 핵심 키워드로 '2020 손님중심 데이터기반 정보회사'를 제시하며 디지털 금융회사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하나멤버스 포인트인 하나머니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실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머니 혁신을 만들고 있다.

지주 계열사인 하나금투는 '하나머니'에 투자 DNA를 심고 있다. 단순한 포인트가 아닌 투자를 통해 가치를 불릴 수 있는 디지털머니로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투는 지난달 29일부터 하나머니를 세전 연 5%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커피머니 불리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나머니는 일반 포인트처럼 고객 거래 실적에 따라 적립된다.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 상품을 매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가 포인트로 쌓이는 식이다. 이렇게 발생한 하나머니를 매주 RP에 자동으로 투자해 연 5%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방식이다. 주간 최대 투자가능 금액은 2만 포인트다.

조대현 하나금융투자 e-비즈니스실장은 "하나멤버스 오픈 4주년을 기념해 소액의 유틸리티 포인트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론칭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머니를 활용한 투자 이벤트를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업희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LH, 베트남 중부 진출 산단 등 복합단지 조성

LH는 지난 8~9일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베트남 후에성과 '쩐마이 랑코 경제구역 개발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 중부지방의 핵심 경제권역인 후에성에 산업단지를 포함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다당시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한 사회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규성 기자



지난 9일 베트남 광남성에서 개최된 LH와 후에성 간의 찐마이 랑코(Chan May-Lang Co) 경제구역 개발협력 협약에서 변창흠 LH 사장(앞줄 오른쪽), 판 응옥 토(Phan Ngoc Tho) 후에성장(앞줄 왼쪽), 응웬 딘 쩡(Nguyen Dinh Chung) 베트남 부총리(뒷줄 왼쪽 첫번째), 주형철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뒷줄 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H

## 상한제 여파에 새아파트 청약 열기 '후끈'

### 신규 공급 축소 우려에 집값 '굉충' 부산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등 주목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는 여전히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치솟는 모습이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첫 대상지역이 서울 27개동으로 지정된 이후 신규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규제를 피하려는 단지가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1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있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6개월 유예기간을 뒀지만 사실상 기한 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라는 부작용이 예상되면서 연내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 (이달 공급되는 주요 신규 아파트)

위치	사업명	전용면적 (㎡)	총가구수 (일반분양)	건설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84	450	롯데건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편한세상초지역 센트럴포레	49·59	1,450 (425)	고려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산 자이&어울림	59~130	2,564 (1,644)	GS건설 금호건설
인천시 미추홀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33~93	2,958 (1,915)	현대건설

상기 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자료=덕터아파트, 각 사

롯데건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일원에 주거복합단지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아파트 450가구, 오피스텔 352실 총 802가구를 분양중이다.

고려개발은 이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 일대에서 백운연립2단지 재건축 사업인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 49~84㎡, 1450가구 중 49㎡·59㎡ 42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초지역을 노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수인선 초지역(예정), 신안산선 초지역(예정), KTX 초지역(예정)도 가깝다.

GS건설·금호건설은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무등산 자이&어울림' 39~160㎡ 2564가구 가운데 59~130㎡ 164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현대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39~93㎡ 2958가구(임대포함) 가운데 191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천지하철2호선 시민공원역을 걸어서 10분대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1호선과 인천지하철2호선 환승역인 주안역도 인접해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 "창업 3년 만에 33개국서 85건 특허"

### IPO 간담회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 티움바이오

혈우병·폐섬유증 등 블루오션 분야 지재권 다량 확보, 자체 상품화 추진



김훈택 티움바이오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사의 향후 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송태화 수습기자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 티움바이오가 합성 신약인 섬유증 분야에 뛰어 들었다. 난치병 치료제 개발 분야는 명확한 신약이 나오지 않아 블루오션으로 평가되고 있다. 티움바이오의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다.

티움바이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흥우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속해서 수익을 창출해 주가치를 실현하고 글로벌 희귀 난치질환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겠다"며 코스닥 상장 일정을 공개했다.

티움바이오는 SK케미칼의 연구·개발(R&D) 인력이 의기투합해 2016년 설립한 회사다. 신약개발을 꾸준히 해왔던 인력을 바탕으로 설립 초기부터 희귀 난치질환 분야에 집중했다. 티움바이오가 집중하고 있는 혈우병, 폐섬유증, 자궁내막증 등의 질병은 신약 개발 쪽에서 블루오션으로 평가된다.

김훈택 티움바이오 대표는 3년이란 짧은 회사 이력부터 언급했다. 김 대표는 "신생기업이지만 한국 신약개발 30년 역사에 획을 그었던 구성원들이 합류했다"며 "30여년에 걸쳐 축적한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티움에서 새로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움바이오의 기술경쟁력은 그간 이력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창업 후 3년 만에 33개국에서 5개 파이프라인에 대한 85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유효물질 도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주요 파이프라인인 면역

항암제,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 자궁내막증 치료제를 도출했다.

김 대표는 "다른 기업과는 달리 수많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추가로 특허도 출원해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쌓고 자체적인 상품화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혈우병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다. 혈우병 후회인자 치료제와 B형 혈우병 치료제다. 이중 후회인자 치료제는 전임상 단계로 2021년 임상 1상에 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B형 치료제는 후보물질 도출과 11국 물질 특허 확보를 완료한 단계라는 것이 티움바이오측의 설명이다.

치료영역도 다각화해 나가는 중이다. 섬유증 분야에선 간 섬유증, 신장 섬유증,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또한 항암 분야에선 표적 장기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며 바이오 신약 분야 역시 여러 치료제를 개발해 영역을 다각화나갈 예정이다.

티움바이오는 총 250만 주를 공모한다. 공모 후 총 주식 수는 2318만 9926주가 된다. 확정 공모가는 1만 2000원으로 책정됐으며 공모 금액은 300억원이다.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청약은 받는 다. /송태화 기자 avin@